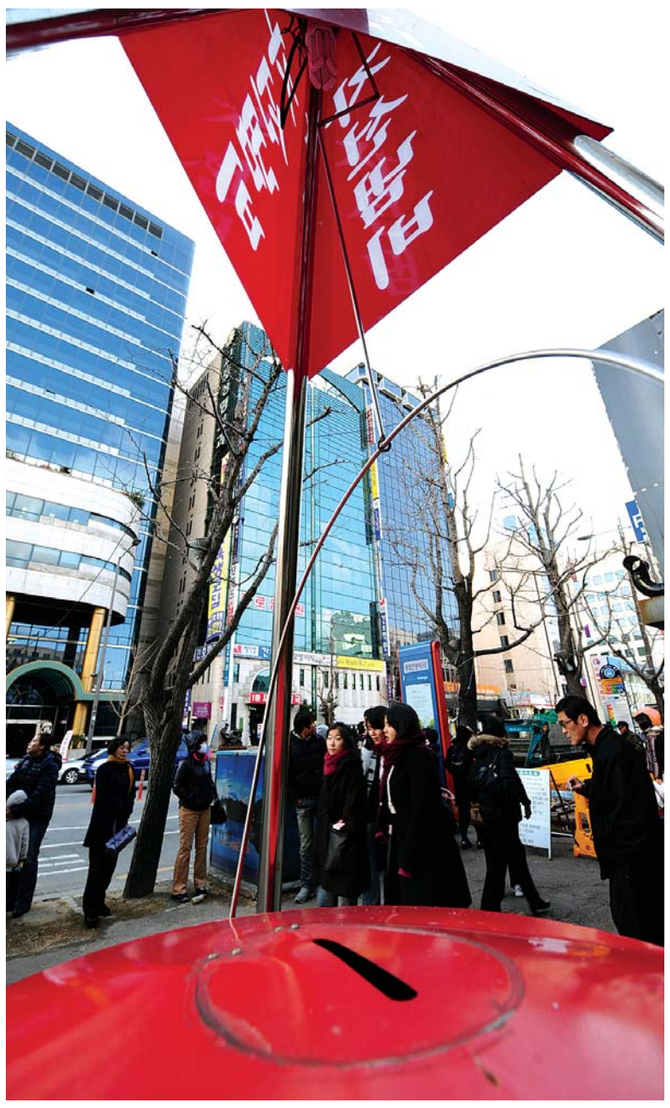


썰렁한 자선냄비 온 종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26일 오후, 행인들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는 등 움츠린 탓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국투자신탁 앞에 설치된 '무인 자선냄비'를 찾는 손길은 뜸하기만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검 올 토착비리 37명 구속

지자체·교육청·체육계 등 148명 적발

공직사회 뇌물수수 관행도 여전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적발된 토착비리 사범이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 교육·경제·농업·체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비리가 저질러져 토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광주·전남의 토착비리 사범 14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1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교수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전문대학 전 총장 김모(62)씨를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07년과 2008년 청탁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사회의 뇌물수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언(62) 전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해 승진자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영철(57) 전 해남부군수는 업자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구입비 대납 약속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허 전 부군수의 수뢰 의혹은 전남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의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각종 국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비리가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산양산삼(장뇌삼) 보조금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산림업자와 농민 등 2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곡성군과 화순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1인당 2100여만~5억1200여만원씩 모두 18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린 비영리단체 대표와 간부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7개 비영리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단체별로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2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 현장 등에서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 15명이 기소된 것을 비롯, 각종 사업 과정에 개입해 갈취·공갈을 일삼은 민생침해 사범도 줄줄이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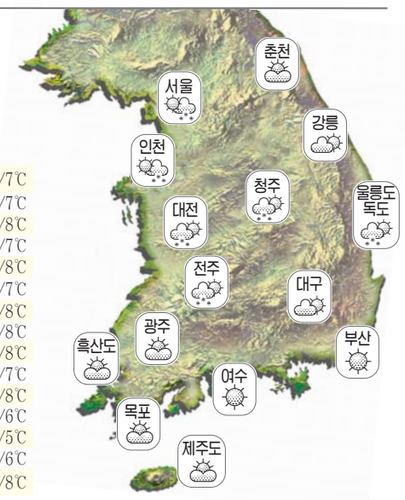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은 "토착비리는 최근 검찰이 가장 주된 수사분야로 꼽을 만큼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를 좀먹는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9분 해짐 17시 27분 / 달뜸 --시 --분 달짐 11시 25분

낮부터 추위 풀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2/7℃
목 포	구름많음	0/7℃
여 수	구름조금	-1/8℃
나 주	구름많음	-3/7℃
완 도	구름많음	-1/8℃
구 례	구름많음	-4/7℃
해 남	구름많음	-3/8℃
장 흥	구름많음	-3/8℃
순 천	구름점차많아짐	-2/8℃
영 광	구름많음	-3/7℃
진 도	구름많음	-1/8℃
전 주	오전한때 눈	-2/6℃
군 산	오전한때 눈	-2/5℃
남 원	오전한때 눈	-3/6℃
흑산도	구름많음	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2.0~4.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6:17 18:42	11:24 --:--
여수	00:59 13:24	07:00 19: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화)	29(수)	30(목)	31(금)	1(토)	2(일)
날 씨						
최저/최고	1/5	-2/4	-4/3	-5/1	-6/-1	-6/2

대광여고 1등급 비율 1위

고려고 수리·송원고 언어·숭덕고 과탐 성적 최고

전국 연합학력평가

지난달 말 치러진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가운데 대광여고(1학년) 성적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고의 경우 수리, 송원고는 언어, 숭덕고는 과학탐구 영역 인원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6일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1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역별(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등급 분포표를 분석한 결과, 대광여고의 1학년 1등급 인원이 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려고로 282명이었으며 숭덕고 269명, 인성고 258명, 송원고 248명 순이었다.

2학년에서는 대광여고의 1등급 비율이 15.36%(168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과학고(14.61%·50명), 대동고(13.55%·142명), 금호고(13.39%·128명),고 려 고 (12.24%·128명)순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대광여고는 언어와 외국어 1등급 비율 1위를 기록했고 금호고는 수리 가, 고려고는 수리 나 영역에서 1등급 학생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수능을 대비해 교육청별로 학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연합회가 사설 모의고사를 없애려고 도입했으며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교육청이 차례로 문제를 출제한다. 광주에서는 45개 인문계 고교가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 특수교육 보조원 시범 채용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11년에 특수학교나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시범 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우선 1명을 채용해 광주 선명학교에 배치한 뒤 성과를 평가해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응시자격은 특수학교 고등부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로, 장애 등록이 된 18세 이상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사를 보조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돕는 역할을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년 학교별 성과급 최대 3배 차이 난다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지역, 같은 급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뉘며, 학교 성과급제 실시 대상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연합뉴스